

# 일제강점기 북방과 시에 나타나는 시의식 고찰 1

오 양 호\*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유랑과 방랑, 그 낭만적 기질<br>(Bohemiantemper)의 본성 |
| II. 팔려가는 여인과 박제된 민족에 대한 허<br>무의식 | IV. 마무리                                       |

## I. 서론

일제강점 말기, 곧 1930년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부여대하고 반도의 북쪽, 마도강<sup>1)</sup>을 찾아 떠났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시인들도 많았다. 필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마도강'은 滿洲, 閔島지역을 함께 지칭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만주'나 '간도'라는 지역명이 널리 퍼진 배경에는 일본의 한국강점과 관련되어있고, 이 글이 문제 삼는 시인 白石이 유독 만주 지역에서 시를 발표할 때는 '한열생'이라는 당시의 창씨개명과 역행되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이런 시인의 의식과 호응을 위해 이 글은 종래의 '만주', '간도'라는 지역명 대신 '마도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맥상 간혹 '만주·간도·북방'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겠으나, 위낙 의도에는 변함이 없다. 민족의 고난·이민사가 내포된 '마도강'의 정확한 용례는 1943년 일본의 가혹한 압제로 절필한 金昌傑의 소설 <暗夜> 도입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在

자는 이 일단의 시인들을 北方派로 부르려 한다.

오장환, 유치환, 이용악, 이찬, 박팔양, 이설주, 이서해, 백석, 김달진 등이 그 대표적 시인이다.

오장환과 이용악의 경우는 고향에서 쫓겨가는 사람들의 이별담을 서사화했다. <北方的 길>, <전라도 가시내>, <낡은 집> 등에서 이런 성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장환의 <북방의 길>의 퍼스나가 파탄상태에 빠진 농민이 삶의 터전으로부터 가련하게 내몰리는 상황이라면, <전라도 가시내>는 이미 삭막한 대지로 쫓겨온 여인의 슬픈 초상이다. 오장환이 <북방의 길>에서 옷에 송아지 냄새가 나는 농부는 먹고 살 길을 찾아 가족을 거느리고 북행길에 올랐지만, 어린 자식은 소꿉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차창을 쥐어 뜯는다고 할 때, 이용악은 마도강 주막에서 술을 파는 소녀는 '흉작촌이 모낸 어린 희생자(<전라도 가시내>)'라며 슬퍼했다. 그러면서 胡人의 말뚝이 고향과 채찍에 고통받는 소녀가 왜 마도강까지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가를 서사화했다. 고향은 탁류에 휩쓸리는 강가처럼 파탄의 상태에 이른 공간이고, 그곳에서의 삶은 비 새는 토막에 누더기를 쓰고 꾸구리고 앉은 궁핍의 땅이 되었기에 전라도 가시내는 마도강까지 굴러와 작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경도에서 흘러온 사내가 들려주는 이 서사는 황폐했던 한 시대의 단면을 그림처럼 생생히 묘사한다.

한편 청마 유치환은 이런 시대를 모가지에 멩어가 걸렸던 때로 슬회한 바 있는데 그 성격은 앞의 두 시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나 시의식이 현실을 문 제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sup>2)</sup>

---

滿朝鮮人小說集, 『썩트는 大地』(滿鮮日報社, 新京, 1941).

한편 金銅植의 <탄식>, 『滿鮮日報』 1940.5.2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남국이 천리라니 고향도 천리라오/마누라 무더노코 어린것도 무더둔 땅/마도강 마둥강 나마저 무더두오.”

2)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1959, 34-35쪽.

滿洲! 만주는 이미 우리의 먼 先代에서부터 광막한 그 벌판 어디메에 모진 뼈를 묻지 않은 곳이 없으련만 나는 나대로 내게 따른 가권을 거느리고 건너 갈 때는 속으로 슬픈 결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다른 부풀은 희망에서가 아

그러니까 유치환의 북방시의 한 정점 <광야에 와서>와 같은 시는 시인의 이런 체험과 맞물린 한 시대의 정신인 셈이다. 청마 시의 치열한 시정신이 터를 잡은 곳이다.

<광야에 와서>와 같은 작품도 1940년 봄에 북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청마의 심리, 지식인의 절박한 고뇌와 단혀버린 시대상황이 압축된 작품이다. 그러기에 당시의 한반도 사정을 논의할 때 잘 인용된다.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며 보내야 하는 나날, 그래서 준열하지 못한 일상사로부터 탈출하고, 또 뒷골목의 파락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자기관리 때문에 북만으로 갔다는 진술은 비단 청마만의 고백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미당 서정주가 텅빈 공간, 너무 많은 하늘, 아무것도 없다고 한 땅, 북방도 바로 이런 공간이다.<sup>3)</sup>

북방파의 다른 하나의 갈래는 시사에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는 세 시인 李瑞海와 김려수(朴八陽, 필명 金麗水), 李雪舟이다.

오장환과 이용악, 이찬, 서정주의 시가 내몰리는 현실의 세계이고, 유치환이 절박한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자학적 탈출이라면, 둘째 그룹의 이서해, 김려수, 이설주 세 시인의 서정적 자아는 방향과 漂泊에 사로잡힌 코스모폴리탄들이다.

우선 이 세 시인의 성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서해의 시 한편을 보자

비오는 이방(異邦)의 거리를 거닐며  
 휘파람부는 젊은 사나히 그는  
 낙엽(落葉) 같이 못 발길에 채이고 밟히는 코스모포리탄

가슴 깊이 간직한 환영(幻影)이여  
 아름다운 꿈이 있었기에 마음은 아프다.

---

나라, 오직 나의 인생을 한번 다시 재건하여 보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는 식민지 백성으로 모가지에 멩에가 걸려져 있기도 하였거니와 그 보다도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너무나 자신에 대한 준열을 잃고 계율하게 서성거리고만 살아 왔던 것입니다.

3) 서정주, 『歸蜀道』, 宣文社, 1948, 45쪽.

전신주에 몸을 기대 모향심(慕鄉心)에 두 눈이 침침해라  
- <코스모포리탄> 1, 2연<sup>4)</sup>

이 세 시인에게서는 근원적 상실감, 또는 근원 회기욕구가 감지된다. 이 시의 외연은 코스모포리탄이라고 하지만, 기실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서의 지적 반응이 아닐까. 이 세 시인에게서는 이런 점을 문제로 삼는다.

## II. 팔려가는 여인과 박제된 민족에 대한 허무의식

1930년대 말 마도강체험이 형상화된 북방시 가운데에는 팔려가는 여자에 대한 서사가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시인이 이용악이다. 이용악은 1937년 도쿄(東京)에서 발행한 시집 『分水嶺』의 제일 앞자리에 다음과 같은 6행의 짧은 시, <北쪽>을 실었다.

북쪽은 고향  
그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  
머언 산맥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다시 풀릴 때  
시름 만흔 북쪽 하늘에  
마음은 눈 감을 줄 몰른다.

- <北쪽> 전문

『분수령』은 이용악의 처녀시집이다. 이 첫 시집을 팔려간 여인에 대한 슬픈 서사로 시작하는 시의식은 무엇일까. 이용악은 이 시집의 후기에서 처음에 「분수령」은 미발표의 시고에서 50편을 골라서 엮었던 것인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못했고, 여러 달 지난 지금 처음의 절반도 못되는 20편만을 겨우 실어 세상에 내보낸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꼬리말'이란 이 후기가 이 시집 간행에 따른 어떤 고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고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50수의 시가 20수로 삭감될 때 1930년대 후반 식민지

4) 李瑞海, 『異國女』, 漢城圖書株式會社, 1937, 16쪽.

통치를 하는 적국의 수도에서의 시집 출판이라는 상황과 맞물리는 어떤 조건의 시가 제외되지 않았을까하고 유추할 뿐이다. 이것은 <北쪽>이 앞에 논의해 온 당시의 대체적인 시의 경향과 그 내포가 동질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릇 서시란 한 시집에서 그것의 시적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우리는 이 시인이 그후도 <北쪽>과 같은 모티프로 계속 시를 쓴 사실에서 이런 가정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을 발견한다. 팔려서 마도강까지 왔다는 <전라도 가시내>의 서사가 바로 이런 추론과 맞물린다.

네 두만강을 건너 왔다는 석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 마다 불뛴을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니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솔기 구름 속을 달리는양 유리창이 흐리더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듯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마디 너의 사투리로 매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 가져라

- <전라도 가시내>5)

이 시를 외연만으로 읽을 때, 이 시는 남녀간의 정분을 노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분은 결코 낮선 주막에서의 하룻밤 사랑 같은 것이 아니다. 여인들이 팔려 오도록까지 상황을 악화시켜 놓고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사내의 자탄이 민족의식의 색깔로 시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내란 어떤 존재인가. 그도 고향을 떠나 떠도는 존재이다. 왜 고향을 떠났을까.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민족사의 비극을 환유하기 때문이다. 여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르는 토로 속에는 기실 그간 사내가 겪었던 삶의 신산함이 자리잡고 있다. '이웃고 얼음길이 밝으면 /

5) 『李庸岳集』, 『현대시인전집 1』, 同志社, 1949, 91-95쪽.

나는 눈 포래 휘감아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 나설 게다 /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고 한 대목이 그렇다.

남의 땅에 작부로 팔려온 제비 같은 소녀, 그런 여인을 앉혀놓고 술을 마시  
는 동족의 사내, 그 사내의 흥중은 지금 깊은 죄책감에 빠져있다. 여자를 팔아  
먹었다는 자책감, 채홍사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자격지심이 이 사내  
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역만리에서 깨닫는 이 통한이 이 사내를 울게 만들고,  
눈보라 속으로 자취없이 사라지게 한다.

생이별한 그 녀석은 꿈에 뵈까 두려워서도  
아홉살난 중대가리 그 아이 생각  
이처럼 눈 내리고 스산한 밤에  
이북어미 등살에 웅크리고 덜덜 떨며  
잠 못드는 상싶어  
잊으려도 잊으려도 미칠 듯 싶다 미칠 듯 싶다

오 북국(北國)의 밤은 오늘도 눈이 내리고  
게다가 셋바람마저 이-잉 휩쓸어치고  
눈물겨웁다 국경에 시드는 한 떨기 꽃이여  
오늘밤도 오다가다 깃들인 어느 여인(旅人)의 품에  
보람없는 설움의 향기를 풍기느뇨

- 李燦, <눈밤의 기억><sup>6)</sup>

이런 사건 속에는 이 땅의 남자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체험했던 불행한 남성  
상처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공녀'란 이름으로 딸을 바쳐야 했고, 병자난에는  
환향녀, 화냥년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맞아야 했고, 또 한 때는 정신대로 여인들  
을 보내야 했던 사실 말이다. 이 땅의 사내·남자들이 받았던 이런 정신적 상  
처가 물론 이용악이나 이찬의 시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당이 그 시절  
마도강에서 조그만 회사 서기노릇을 하며, 주인에게 무시당하는게 서러워 오기  
로 호피조끼를 사 입던 시절<sup>7)</sup> 불렀던 淑이도 이용악이 부르던 順伊나 이찬의  
'기억의 여인'에 다르지 않은 포에지이다. 북방파시의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의

6) 『여성』, 1937. 1.

7) 미당 스스로의 술회. 시인 이근배와 문정희의 증언(2002. 7. 10~15 長江三峽 여  
행 중).

가슴을 울리는 또 하나의 깊이이다.

역새플넛 옥어진 峻嶺을 넘어가면  
하늘밑에 길은 어데로나 있느니라.  
그많은 三等客車의 步行客의 火輪船의 모이는곳  
木浦나 群山等地. 아무데거나

(…)

혹은 어느 人事紹介所의 어스경침한 房구석에서  
속옷까지 깨끗이 그 치마뒤에있는 속옷까지 베껴야만하는 그러한順序.  
감한 네 열 개의 손톱으로 쥐여뜨드며 쥐여뜨드며  
그래도 끝끝내는 끌러가야만하는 그러한너의 順序를.

淑아!

- <밤이 깊으면> 중에서<sup>8)</sup>

李泰俊도 그 시절 마도강을 여행하며 우리의 여자들을 팔아 먹는 채홍사의 이야기를 썼다.

3등 대합실에 가니 거기도 자리가 없었다. 손씻는 대로 가니 거기엔 여자 전용도 아닌 데서 시מן건 용 속적삼을 내놓고 목덜미를 씻는 조선 치마의 여자가 있다. 보니 그 옆엔 조선 여자가 여럿이다. 까무잡잡한 30이 훨씬 넘어보이는 여자가 하나, 그리고는 목덜미를 씻는 여자까지 세 여자는 모두 22, 3세 정도로 핏기는 없을 망정 유들유들하고 화장에 분주하다. 나는 제일 먼저 화장을 끝내는 듯한 여자에게로 갔다.

“실례올시다만 나도 여기가 초행이 돼 그러합니다. 어디까지들 가십니까?”  
“예?”

하고 그 여자는 놀랄 뿐,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나를 보던 눈으로 맞은편에 이들과는 상관없는 듯이 따로 서 있는 노신사 한 분을 쳐다보는 것이다. 작은 눈이 날카롭게 반짝이는 이 노랑 수염의 노신사는 한 손으로 금시계 줄을 쓸어만지며 나에게로 다가왔다.

- <滿洲紀行> 중에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北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란 그 정신적 상처가,

8) 서정주, 『歸蜀道』, 宣文社, 1948, 48-50쪽.

<제비갓흔 소녀야>, <전라도 가시내>, <눈밤의 기억>이 같은 것을 의미한 서로 조금씩만 다른 팔려간 여인의 모티프임을 확인한다.

이 유형의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한 면은 유랑의 모티프가 형성하고 있는 응결된 언어와 그것이 발산하는 포에지의 문제이다. 이런 면은 이 유형의 시에 두루 퍼져 있어 적합한 예를 지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삼살개 짚는 소리  
눈포대에 얼어붙는 쇳달그름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쫄래 한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몰은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1연

우리가 잘 알 듯이 블라디보스토크는 조선의 망명 정부가 있던 한·소 국경 지대의 항구도시이다. 그러나 이용악의 이 시에서 이 고유명사가 발산하는 의미는 물론 이런 현상적 사실의 진술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갈 곳도 돌아올 곳도 없는 나그네가 잠시 머물 정적만 감도는 밤 항구, 눈보라 몰아치는 삭막한 어둠의 공간이 이 도시이다. 어머니의 입김도 마음으로만 남아 있고 쫄래 한송이 피지 않는 '북쪽'의 동토이다. 북쪽과 여인·어머니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다. 이렇게 이 시의 퍼스나는 낙오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낙오자의 식은 행복했던 과거사와 연결되어있다. 이것은 불행한 현실을 과거를 통해 회복하는 자세이다. 비극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이다. 이용악의 이런 세계에 대한 비극적 현실의식은 다시 항구의 이미지 등으로 형상화되거나 국경지대를 정신적 공간으로 한 남성적 상처로 확대된다.

꽃이랑 썩어 가슴을 치래하고 우리 회파람이나 간간이  
불어보자요 훨훨 옷깃을 날리며 머리칼을 날리며



서로 헤어진 멀고 먼 바닷가에서  
우리 한번은 웃음지어 보지요  
.. <항구에서> 제3연

눈내려  
아득한 나라까지도 내다보이는 밤이면  
내사야 혼자서 울었다

나의 피에도 머물지 못한 나의 영혼은  
탄타로스여  
너의 못가에서 길이 목마르고  
- <별 아래>

인용된 시 두 편이 모두 다 항구의 이미지와 연계된 별리의 서정시이다. 그렇지만 그 웃음은 이별 다음을 막연히 기약하는 공허한 웃음이요, 또 이별을 해야 할 사람의 쓸쓸한 웃음이다. 그래서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이용악의 이런 비극적 서정성은 드디어 민족공통체적 페이소스로 확산된다. 이것은 이수형, 백석과 같은 '민족 의식적 주체'라는 시정신과 동류향을 이루는 데서 드러난다. 이 점을 이 세 시인의 대표작을 통해 조금만 더 고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안인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엮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버레 소리 가득차 있었다.

露領을 단이면서까지  
애써 자래은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채

- 이용악, <풀버레 소리 가득차 있었다>

흰 옷에 바가지 주렁주렁 둘러메고 가는 사람들 너희끼리 꼼직히 바래는 마  
음끝은 어디길래, 가도가도 자꾸만 어긋나는 것일까. 박꽃 덩굴이 말라가는, 계

딱지같은 지붕에선 유통유통 창끝같은 고드름 장작도 사라져 겨울 지나면 고향 뜰 허물어진 돌각담 틈에는, 담자색 오랑캐꽃 피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라리에 어캐춤 추며, 하얀 달래 살진 봄미나리로 소꿉질하며, 손주들이 목화처럼 자라던 일이라, 건너 산기슭 흙내 그윽한 죄고마한 영창, 모두해서 회한한 것이란, 하얗게 달힌 쌍바라지 뿐, 해마다 할아버지는 방바닥하신다고 열매기다리던 탱자나무 흰꽃 필 무렵이면, 으레히 소천어 천렵하던 일이며, 이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고, 고향들엔 선조의 묘만 늘어가던 유난히도 유자랑 향기롭던 씨늘한 가을날, 손주소녀는 하얀 쌍바라지도 여회고, 몇몇개의 바가지에 섞여서 이리굴리고 저리굴리고 이면열차속 때묻은 돌부처되어서, 자꾸만 흔들리어 가던 일이며.

이수형, <行色> 제1연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木手네 집 현 살을 간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 백석,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중에서

인용된 북방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아버지, 손주와 할아버지, 부모며 동생 등으로 표상되고 있는 가족사의 문제이고, 그 다음은 죽음과 이어지는 적막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이런 문제가 우리의 토속어로 응결되어 음향적인 뉴앙스에서 오는 매혹적인 포에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작품의 서정적 자아는 모두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개지를 떠도는 낙백한 영혼이 이들이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손주와 할아버지는 또 무엇인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 세 존재는 가족의 중심이고, 인간 생명의 뿌리이다. 위의 시들은 이 기둥과 생명의 존재, 그 엄숙한 생명의 고리관계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존재는 모두 그 뿌리를 내려야할 공간을 떠났

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난 공간에서 아버지며 할아버지를 통해 자기를 발견한다. 인간 생명에 대한 본질의 인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사하는 아버지고, 유자랑 향기롭게 써늘한 가을날 선조의 묘 끝자리를 메우는 할아버지이며, 부모와 동생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인 체념의 장본인들이다.

한편, 이 세 시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죽음과 적막함’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 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애써 기른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유언도 없이 객사한 아버지,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밤, 정적 속의 입종, 그리고 바람 센 쓸쓸한 거리를 헤매이는 낙백한 영혼의 호소, 하얗게 바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친 행색 — 이들은 모두 매듭만은 역사속에 알개 모르게 형성된 비애와 체념의 상처이다.

이런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 이런 시를 썼던 당사자, 이수형의 슬회를 한번 들어보자.

幸인지 不幸인지 짐작이때 우리는 放浪하는 아비어미의 등굣에서 시달리며 무서운 國境넘어 우라지오바다며 아라사 별판을 달리는 이즈보즈의 마차에 토로이카에 흔들리어서 갔던 일이며, 이속고 모도다 홀어미의 손에서 자라울 때 그림 즐기던 용악의 형의 아구릿파랑 세네카랑 술한 덧쌍을 붙인 방에서 밤낮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일이며, (….) 그 뒤 섬프기 시작하여 日本으로 北間島로 헤어졌다 만났다하며 工夫하고 放浪하는 세…<sup>9)</sup>

이용악, 한얼생, 이수형의 실제 삶이 앞의 세 시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와 유사하다. 방랑과 이산의 현장에서 살았던 바로 그 마도강체험이 시의식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 편의 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는 여성적 상처에 의한 포에지가 어떻게 북방정서를 환기하는 언어미로 압축되는가의 문제이다.

어찌자고 자꾸만 그리워지는  
당신네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자  
북에서도 북쪽

9) 「이용악집」, 『현대시인전집1』, 동지사, 1949, 160쪽.

그렇습니다 머나먼 곳으로 와버린 것인데  
산구비 돌아돌아 막차 갈 때마다  
먼지와 함께 들어키기엔  
너무나 너무나 차거운 유리잔

- <막차 갈 때마다> 전문

해방 직전에 쓴 이용악의 이 시의 포에지가 외방지향의 고향 상실감으로 나타나는 면은 동경에서 쓴 『남은 집』 시절의 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면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성과 향토성이 모국어의 한 본질을 통과하면서 독특한 정서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얼생의 문학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시인의 시를 함께 묶어 그 포에지를 민족의 주체적 시의식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것이다.

### Ⅲ. 유랑과 방랑, 그 낭만적 기질(Bohemiantemper)의 본성

지금까지 고찰해 온 북방시들과는 다르게 한 시집이 전부 또는 거의 유랑과 방랑의 모티프로 차 있는 예가 있다. 이서해의 『異國女』, 이설주의 『放浪記』, 박팔양의 『麗水詩抄』가 그것이다.

1937년에 간행된 이서해의 『이국녀』에는 5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 작품이 유랑과 방랑이 모티프로 되어있다. 참고로 우전 시의 제목을 서시부터 10개만 순서대로 적어보자.

<북조선>, <두만강을 건너며>, <이국의 달밤>, <고별>, <비나리는 도문강 안에>, <고국을 떠나며>, <두만강반에 해는 점으러>, <코스모포리탄>, <沙風>, <강안에 앉어서> 등 하나 같이 유랑·방랑·떠남을 환기하는 제목이다.

1948년에 간행된 이설주의 『방랑기』 역시 이와 유사한데, 이 경우는 아예 시집 이름부터 ‘방랑기’이다.

소소리 바람 불어 눈 날리는 거리를 길 잃은 손이 되어

땀다디 주저 모은 서투른 말에 姑娘이 웃고 가고

行商때 드나드는 바쁜 나루에 물새가 울면  
외딴 마음은 노상 故鄕하늘에 구름을 좇곤했다.

- <방랑기> 제3, 4연<sup>10)</sup>

시집명이 된 <방랑기>의 일부분인데, 그 공간이 역시 북쪽으로 되어있는 점은 지금까지 다룬 여타 시와 동일하다. 좇어듣고 배운 말에 꾸냥(姑娘)이 웃고, 장사꾼이 분주히 드나든다는 서사로 보아 한민국경지대 어떤 지역일 듯하다. 다른 작품에서도 방랑과 유랑의 낭만적 시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엄혹한 현실이 시대를 증언하며 형상화된다.

눈보라 사나워 야원 불을 꺾고  
빙판에 말굽이 얼어붙는  
영하 50도 한북만리(寒北萬里)에  
유랑의 무리가 산동쿠리(山東若力) 처럼 흘러간다

일본서 또 무슨 개척단이 새로 입식(入植)한대서  
고국을 모르는 백의동포들이  
할아버지때 이주해서 삼십년이나 살았다는  
남만(南滿) 어느 따사로운 촌락을 좇겨  
북으로 북으로 흘러가는 무리란다

- <移民><sup>11)</sup>

이설주가 해방 이후 첫 번째로 낸 시집이 『들국화』(1947)인데 이 시집에도 북만을 방랑하는 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이민>은 같은 시집의 <移秧>과 함께 당시의 이주 농민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삶의 사정을 이와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박팔양 또한 이 두 시인과 성향이 같다. 『여수시초』는 백석이 만선일보에 평을 쓰기도 한 시집인데, 이 시집 역시 거개의 작품이 보헤미안적 템퍼에 기울어져 있다.

10) 이설주, 『放浪記』, 啓蒙社書店, 1948, 19쪽.

11) 『들국화』, 대구: 民鼓社, 1947, 22-23쪽.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  
저음(低音)의 기적(汽笛),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유랑과 추방과 망명의  
많은 목숨을 싣고 떠나는 배다<sup>12)</sup>

- <仁川港> 제2연

『여수시초』는 박팔양 自選의 시집이고, 이 시집을 한얼생은 “슬픔과 진실”을 담은 인생담이라며 높이 평가했다.<sup>13)</sup> 한얼생이 왜 이 시집을 높이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여수시초』가 유랑·추방·망명·코스모포리탄의 시의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상 세 북방파시인은 불행하게도 우리 시사에 그 이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시인 이서해가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의 고향은 충남 공주이고 한만국경지대를 거쳐 먼 북쪽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기 전 『신동아』에 <토막의 달밤>(1934. 4)을 발표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 시인의 성향이 어떤 데 자리잡고 있는지는 이 작품에 잘 드러난다.

흙속에 사는 사람들  
어느 송장의 굴총(掘冢)인지도 모르는 토굴(土窟)  
그들은 송장같이 흙 속에 묻힌다.

무덤같은 토막 어둑한 흙 속  
거기에도 피끓는 생명이  
허위를 모르는 진실한 삶을  
찬 땅에 깊이 깊이 파고 드느니

- <토막의 달밤> 중에서

이 시의 내용은 토굴 생활을 해야 하는 비참한 사람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그 토막에 달이 뜬다는 것이다. 비감에 찬 아름다움, 비애미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국 강점이 극대화 되어가는 마당에서 비록 서툰 기교일망정 한국의 근원적 비극의 싹틈에 고민하는 지식인의 정신 세계가 돋보인다. 감정의 넘

12) 朴八陽, 『麗水詩抄』, 博文書館, 1940, 61쪽.

13) 白石, 「슬픔과 眞實」, 『만선일보』, 1940. 5. 9, 10.

침과 과장된 표현이 1920년대의 감상주의 시를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정신 세계가 어떤 데에 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박팔양(1905~?)은 1921년 정지용, 金華山 등과 시동인지 「요람」에서 활동하다가 192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神의 酒>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 京城帝大 법학부 출신의 시인이다. 사회과학 전공자 출신답게 초기에는 카프(KAPF)의 맹원으로 활약하면서 동반자적 처지에서 경향시를 주로 썼다.

박팔양의 후기 문학관은 전기문학관과는 성향이 아주 다르다. 카프 맹원의 비판적 참여성보다 감각적이고, 서정적 소시민 정신과 낭만성이 바탕을 이룬다. 이런 점은 1940년에 간행된 『여수시초』에 대한 평<sup>14)</sup>과 1942년에 편저한 「만주시인집」의 서문에 선언적으로 진술되어있다.<sup>15)</sup>

박팔양은 「여수시초」의 말미, <抄後에>에서 '가난한 오늘을 추억하며 반성하는 하나의 기회,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제야 비로소 정진의 길을 떠나려 마음 먹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의 박팔양을 백석은 <슬픔과 진실>에서 슬픈 시인이라고 했다. 시인은 슬픔을 탄주하며 사는 슬픈 존재이고, 그 슬픔 속에 진실이 있다며 이 시집의 평을 좋게 썼다. 이런 점에서 백석의 이 <슬픔과 진실>은 박팔양의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글이다. 시집 <사슴>으로 화제를 모으고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백석이 박팔양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시집이 간행되던 1940년대 초에도 박팔양은 여전히 백석과 같은 시정신에 머물러 있다는 암시를 이 글이 주기 때문이다.

이설주의 시집 『방랑기』는 한 마디로 한 니힐리스트의 광풍제월기이다. 그러나 이설주의 경우는 이 광풍제월의 동기가 시의 행간에서 쉽게 잡힌다. 이런 점이 바로 박팔양의 『여수시초』와 다르다. 완전한 허무주의, 완전한 순응주의가 시대와의 불화를 일으킨 결과의 반응이 아닐까하는 암시가 메타프라이즈되고 있는 낭만적 성향이다.

창망한 하늘 가에  
구름이 자고 이는 오리동 마을

14) 白石, 「슬픔과 진실」, 『판선일보』, 1940. 5. 9.

15) 이 문제는 吳養鎭, 『日帝强占期滿洲朝鮮人文學研究』, 문예출판사, 1996, 참조.

水車가 도는 외딴 오두막  
플래 잣는 順伊야

바탈산 바람이 자면  
저녁노을 비긴 여울에 꽃잎을 띄워

十年을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는 열일곱 소년과 소녀였나

이 밤 내 촛불을 돋우고  
복숭아꽃 피는 마을로 돌아가라

- <복숭아꽃 피는 마을> 전문<sup>16)</sup>

바다가 사나우란다  
쉬이 가자 물길을 마을의 새야  
넘으면 보고픈 나 사는 마을

안개가 짙어오누나  
길을 잃고 해매는 마음의 새야  
꿈에도 가고픈 내 살던 마을

- <나 사는 마을><sup>17)</sup>

이 두 시의 퍼스나는 청소년기의 환상과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슬픈 사랑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서정,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우수, 행복했던 소년기의 회상 등이 방랑과 유랑의 모티프에 의해 굴절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주애>와 동일한 북방적 정서가 시 전체를 압도한다.

#### IV. 마무리

1940년대에 있어서의 이 땅에 사는 조선인은 자기의 땅이면서 쫓겨난 신세였다. 질곡의 하늘 아래에서 실사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

16) 이설주, 『방랑기』, 113-114쪽.

17) 이설주, 『방랑기』, 104-105쪽.



는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구렁으로 떨어지는 형국이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 축이 되었던 시인들, 즉 이용악, 이수형, 유치환, 이서해, 박팔양, 이설주 등의 시에 대입했을 때는 어떠할까. 이들에게서도 동일한 반응으로 설명이 될까. 이점을 이들의 대표작을 통해 살펴 본 후 그 위에 한얼생의 시세계와 그의 삶을 엮어서 살펴 보려한다. 동질성의 확인은 1930년대말 入滿 시인들의 보편성의 발견이고, 이 보편성을 깔고 앉은 이질성이 곧 한얼생 시의 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長安을 나서서 북쪽가는 千里길  
아카시아 꽃 수술에 꿀벌 영기는  
이 길을 떠나면 다시 오지 안하리니

속 눈섭 감실감실 사랑한 너야  
이대로 고이 나는 너를 하직 하노니  
뉘가 묻거들랑 울지말고 모를 다소

千里길 너 생각에 하염없이 건노라면  
하늘도 따사로이 빛등도 따사로이  
가며 가며 쉬어 쉬어 올 곳도 많아라

- 유치환, <義州 市 길> 전문

②

멀구 광주리와 풍속을 사랑하는 북쪽나라  
말 다른 우리 고장  
달맞이 노래를 들려주마

(...)

구름이 하면 흰 구름은  
북으로 북으로도 가리라  
아이야  
사랑으로 너를 안았으니  
대일사귀 새이새이로 먼 하늘을 내다보자  
복사꽃 유달리 고운 북쪽나라  
우리는 어릴스적  
해마다 잊지 않고 우물스가에 피웠다

하늘이 고히 물들었다  
아이야 다시 돌다리를 건너 온 길을 돌아가자  
- 이용악, <아이야 돌다리 위로 가자> 중에서<sup>18)</sup>

③  
가을 밤이 깊어서 찬기운 몸에 스며드노니  
일륜(一輪) 반야월(半夜月)이 밤 안개에 몽롱히 빛나다.  
침침한 불빛을 홀리며 달려가는 마차(馬車)  
꿈같이 닳아와선 종을 울리며 멀리 살어져 가!

(…)

초 일해 푸른 달은 예언자의 우습같은  
푸른 빛발을 뿌리며 묵묵히 굽어 보도다.  
넓은 광원(曠原)이여! 일즉이 피흘린자들의 장지(葬地)여,  
조상(弔喪)하는 듯 비창(悲愴)한 얼굴이여! 반야월이여!

국경의 밤은 깊은대 잠은 어대로 갔나?  
내 맘인 듯 울음먹음은 반야월이 내 얼굴에 우뚝서다.  
- 이서해, <半夜月> 중에서<sup>19)</sup>

④  
北方 高原의 밤바람이 車窓을 흔든다.  
(사람들은 모다 疲困히 잠들었는데)  
이 寂寞한 訪問者여! 문 두드리지 마라.  
의지할곳 없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울고 있다.

그러나 機關車는 夜暗을 뚫고 나가면서  
『돌진! 돌진! 돌진!』 소리를 질른다.  
아아 털끝만치라도 의롭게 할 일이 있느냐?  
- 박팔양, <밤車> 중에서<sup>20)</sup>

⑤  
승가리 黃土물에 어름이 풀리우면  
半島 南쪽 고깃배 실은 洛東江이 情이 들고  
山마을에 黃昏이 밀려드는 저녁 담이면

18) 이용악, 『남은 집』, 동경:三文社, 1938, 30-33쪽.

19) 이서해, 『이국녀』,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52-53쪽.

20) 박팔양, 『여수시초』, 90-91쪽.

호롱불 가물거리는 뚫어진 봉창이 서러웠다

소스바람 불어 눈 날리는 거리를 길 잃은 손이 되어  
 땀마디 주서모은 서투른 말에 姑娘이 웃고 가고

行商때 드나드는 바쁜 나루에 물새가 울면  
 외딴 마음은 노상 故鄕하늘에 구름을 좇곤 했다

- 이설주, <방랑기> 전문<sup>21)</sup>

우리와 친밀한 시인들,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시인들의 작품, 이를 테면 정지용의 <고향>, 윤동주의 <별헤는 밤>, 박목월의 <나그네>, 김동환의 <봄이 오면>, 김춘수의 <꽃> 등...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이런 시인들의 삶의 신비를 꿰뚫어 보고자 노력한다. 그러면 용하게도 그런 시의 의미가 시인의 삶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별헤는 밤>에서 우리는 윤동주의 실향체험이 바로 이 시의 의미임을 발견하고, <봄이 오면>에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인 낭만적 기질이 이 시인을 그토록 시적인 삶을 살게 했을 것이라 믿는다. 북방파 시인들의 위의 5개 작품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였던 체험의 정서가 시인 나름의 인생 드라마를 겪은 후, 다른 무엇과도 같지 않은 아름다운 시에 도달하고, 마침내 다른 어떤 시도 대신할 수 없는, 같으면서 다른 시의식으로 형상화된 것을 보았다. 곧 북방파시의 정신적 가족 정서를 발견하였다.

시 ①은 운명이 이 시인의 삶을 잔인하게 지배하자 시인은 그 운명을 치열한 삶의 의지로 바꾼다. 이 시의 퍼스나는 자신이 태어난 곳의 풍경을 마음 속 깊이 지니고 험한 길을 떠난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아무런 장소와도 인연을 맺지 않은 미지의 공간에 속한 사람처럼 행복하다. 천리길을 너 생각으로 하염없이 걸어도, 하늘도 따사롭고, 뭇등도 따사롭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밝음은 슬픔을 안으로 삼킨 소복한 과부가 짓는 한 순간의 웃음과 같다.

시 ②는 북방파 가족의 정서가 잠시 머물다 떠난다는 나그네의 그것처럼 몽환적이다. 이 시의 바탕은 엄혹한 현실, 그러나 시의 퍼스나는 환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별 속에서 나타나는 시적 진로들의 道程을 반짝이는 눈빛으

21) 이설주, 『放浪記』, 啓蒙社書店, 1948, 18-19쪽.

로 좇는다.

달맞이 노래, 푸른 언덕, 풀 냄새, 구름, 하늘, 복사꽃 등 이런 어휘들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미지들이다. 현실적으로는 꿈을 잃어버렸지만 꿈을 좇고자 하는 욕망이 시의식을 과거로 돌려버렸다. 그러나 시인은 그 과거를 아이를 부르는 장치로 전환시킴으로써 낭만적 밀그림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간 영혼의 심원한 세계 속에는 상상력을 형성시키는 능력이 잠들어 있다. 시 ②의 경우에서도 상상력이 창조하는 이미지들이 바로 정신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 가령 '아이야 다시 돌다리를 건너온 길을 돌아가자'라는 시구는 이 시의 북방지향의 험혹한 현실을 환한 빛 속으로 끌어내며 현실극복의 시의식을 구현시킨다. 이 시를 읽는 한 순간을 통해서 행복의 충일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북방정서의 낭만적 굴절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우리의 주목에 값한다.

시 ③, ④는 막연한 절망과 동경이 모티프가 된 감상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감상성은 유행가 가사나 TV연속극처럼 독자의 저속한 감상력을 자극하여 한 몫 보려는 저질의 정조가 아니라, 정서의 반응이 그 자극에 대하여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센티멘탈이다. 그렇다면 정서 다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시 ③은 한밤중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건이고, 시 ④ 역시 밤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고달픈 신세 때문이다. 센티멘탈(감상성)은 그 반응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정서과다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운문문학의 생명인 감동의 원인이 되는 성격을 지닌다. 나라를 잃고 가두로 울며 헤매는 자의 노래가 이 두시라고 보면 이 시의 감성은 불순한 정서, 저질의 감정이 아니다. 그 반대의 숭고한 정서이다.

모더니즘의 시는 센티멘탈을 극히 경시한다. 대중연애시류를 제외하고는 주지적 이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사춘기 소녀의 감정과다와 대학 입시철이 되면 허다하게 목도하는 모성의 희생적 반응, 조국애, 고토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을 함부로 센티멘탈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2002 월드컵에서 해외 한국 동포가 붉은 악마의 티셔츠를 입고 이국의 거리에서 보여준 행동이 그러하다. 시 ③, ④가 쓰여질 시기 우국지사들은 망명의 길을 떠나면서 조국의 흙 한 줌

을 품속에 품고 갔고, 그런 시절 백범 金九는 그의 일지에서 조국이 해방만 되면 정부청사의 수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을 총 지휘한 영웅이 한갓 문 지기가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상을 뛰어넘는 정서의 과다분출이다. 그러나 한국의 어떤 사람도 백범의 그 반응을 감상과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국 상실에서 오는 민족애가 그런 정서과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 ③, ④도 이런 정황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서 역시 시문학의 영원한 특성인 낭만적 비장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시 ⑤는 식민지 시대 우리 시의 상실의식의 한 갈래이다. 주지하듯이 1920년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 시의 낙원 상실감은 존재, 육친, 연인, 국가, 고향, 고토의 상실 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시 ⑤는 고향을 떠나 떠돌이로 살아가는 인간의 낙원에의 노스텔지어가 낭만적 형식으로 나타난 예이다. 퍼스나나 이를 서술하는 시인이 같은 고향 상실자라는 점에서 이 시는 공간적 의미의 고향동경을 함의한다.

공간적 의미의 동경을 아놀드 하우저는 '고향에 대한 향수'(Heimweh)와 '먼 곳에 대한 향수'(Fernweh)라 했고, 노발리스는 '어디에나 있으며 아무데도 없는 고향적인 꿈'이라 했다. 시 ⑤의 경우는 어디에나 있는 고향이다. 송가리, 松花江의 황토물이 봄이 되어 풀리면, 이 시의 퍼스나는 거기서 고향 낙동강의 봄을 느낀다. 이 시의 이런 점이 이 시가 낭만주의와 관계를 맺게되는 중요한 고리이다. 현재의 이곳이 아니라 먼 과거 어느 곳에 있었던 고향, 그러나 이제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심리 깊은 곳의 동경으로 남아 수시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북방파시가 구현하고 있는 낭만적 성향을 가장 적절히 드러낸다.

우리는 이상에서 북방파시가 그 중국에서 결과적으로 구현한 낭만적 성향을 고찰하였다. 시 ①, ②에서는 비극적 현실을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초극하려는(시 ①) 시의식과 그것을 넘어서서 낭만적 성취를 이루는 것(시 ②)을 발견하였다. 한편 시 ③, ④에서는 그런 낭만적 파국이 조국의 발견으로 심화되는 시의식을 보았고, 시 ⑤에서는 고향상실의 소재를 통해 시상이 낭만적 보편성으로 확대되는 함의를 느꼈다.

주제어: 향수, 북방, 외방지향, 현실참여, 민족, 지방, 방랑

## 참고문헌

- 『滿鮮日報』, 영인본 전5권, 아세아문화사, 1988.  
『學風』 창간호, 1948. 10.  
『李庸岳集』, 『현대시인전집 1』, 同志社, 1949.  
朴八陽, 『麗水詩抄』, 博文書館, 1940.  
白 石, 「슬픔과 眞實」, 『만선일보』, 1940. 5. 9, 10일.  
徐廷柱, 『歸蜀道』, 宣文社, 1948.  
吳養鎬, 『日帝强占期滿洲朝鮮人文學研究』, 문예출판사, 1996.  
吳養鎬,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유중호, 『非純粹의 宣言』, 신구문화사, 1963.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1959.  
李瑞海, 『異國女』, 漢城圖書株式會社, 1937.  
李庸岳, 『남은 집』, 東京:三文社, 1938,  
李靄舟, 『放浪記』, 大邱:啓蒙社書店, 1948,  
李靄舟, 『들국화』, 大邱:民鼓社, 1947.

<Abstract>

## The Study on Writer's Consciousness of Bukbangpa

Oh, Yang-Ho

Seol-Joo lee was a poet who led the DaeGu(大邱) Poet Group at time of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the 1950s. His poems such as 'Wild Chrysanthemum(1947)'(들국화), 'A Torchlight(1947)'(巨火) and 'Bohemian Poetry(1948)'(放浪記) inspired the group to greater efforts with their mixed feelings of sorrow and regret(unique to Koreans). He assumed a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sense of national homogeneity in Korea With a mood of mourning and doom.

His poems have become unique works of literature that deserve to be supported historically, when we want to research the early Korean poetry world of 1950s

Therefore we must consider him as a representative of the early poet group and we should recognize his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Mr. Lee's poems have some peculiarities of bohemian temperament, nihilism and the tender passion of pathos.

We have to consider Korean national pathos to understand his poems completely.

Key Words: bohemian temperament, nihilism, nostalgia, nationalism